

“월세 공제 신청하지마” 집주인의 횡포

임대소득 감추려 세입자에 월세 인상 엄포·전입신고 방해 작년 첫 시행 월세 80%까지 공제...직장인 11만명 혜택

광주시 북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38)씨는 최근 집주인과 심하게 다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데 집주인이 ‘신청하지 말라’며 다짜고짜 막아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집을 너무 지저분하게 썼다’는 등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또 이달부터 월세를 5만원씩 더 올리겠다고 엄포도 냈다. 박씨는 집없는 것도 서러운데 법에 정해진 세제 혜택조차 받지 못하게 돼 서러움이 더욱 복잡했다.

반대로 집주인은 얼마 되지 않는 월세 수입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1층은 자신이 살고 2층에 27가구를 세 놓았는데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신청

하면 자신은 재산세에 소득세까지 더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럴 바엔 월세를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로 조금이라도 세제혜택을 보려는 세입자와 소득이 드러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집주인의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5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자신이 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연 최

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4년 소득분부터 세액공제로 개편, 대상자와 혜택 폭을 확대했다. 특히,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 계약서와 월세납부증명만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신청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상당수 집주인은 임대소득이 공개되는 세액공제 신청을 달갑지 않게 여겨 각종 핑수를 부려 공제 혜택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월세 35만원에 사는 직장인 김모(31)씨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려 했지만, 집주인으로 부터 제지당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이달부터 월세를 5만원 더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김씨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40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월세가 5만원 오른다면 연간 60만원을 더 내야 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일부 집주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계약 당시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집주인과 갈등, 홍보 미흡 등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시행된 첫해인 지난해의 경우 1600만명에 달하는 직장인 중 11만명만이 신청해 327억원 공제를 받았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세액공제 홍보활동을 통해 신청률을 높이고, 임대소득을 다루는 소득세과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 17:35

달출 03:46
달짐 14:38

쌀쌀해요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2/6	보성	구름많음	-3/6
목포	구름많음	-1/6	순천	구름많음	1/9
여수	구름많음	1/8	영광	구름많음	-3/6
나주	구름많음	-4/7	진도	구름많음	-1/7
완도	구름많음	0/7	전주	구름많음	-3/5
구례	구름많음	-2/7	군산	구름많음	-3/4
강진	구름많음	-2/7	남원	구름많음	-5/5
해남	구름많음	-2/7	축산도	구름많음	4/7
장성	구름많음	-4/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부	면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5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부	면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부	면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5~2.5

◇생활지수

체감온도	관심
동파	낮음
뇌졸중	높음

◇물때

	밀물	썰물
목포	11:28 23:22	04:20 17:17
여수	06:58 18:41	13:00 00:00

◇주간 날씨

7(목)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2/5	-2/2	-3/2	-3/2	-3/3	-2/5	-1/5

여중업원 사망 여수 유흥주점 업주 영장 재신청

성매수 혐의 경찰관 등 3명 추가 입건

여수 유흥주점 여중업원 사망 사건 <광주일보 2015년 12월22일자 6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유흥주점 업주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또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경찰관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중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폭행치사·상습폭행·성매매특별법위반 등)로 업주 박모(여·42)씨에 대해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건 당일 1시

간30분 동안 A(12월10일 사망)씨를 폭행했다는 여중업원들의 구제적 진술과 A씨가 이전에 찍어놓은 명지국 사진들을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여중업원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남청 소속 경찰 B씨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박씨의 유흥주점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은 공무원 7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으로 늘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1월19일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A씨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푸른광주21협의회 명칭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푸른광주21협의회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5일 “‘푸른광주21’이라는 명칭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협의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995년 푸른광주21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창립한 지방의제21추진기구다. 그동안 푸른길 가꾸기, 친환경드림 개최운동, 지구의 날 행사, 생태문화마을만들기 등 활동을 해왔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광주교육청 누리 예산 재의 요청...시의회 “상정 불가”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 광주시의회에 예산을 다시 심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은 8일 열리는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 입장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보육 대란’이 빚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5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을 삭감한 데 따른 예산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오는 8일 광주전남연구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71조)을 감안하면 시의회의 의지에 따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재심의의 안전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8일 본회의 때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특히 “시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심의 때 유치원 예산을 삭감한 만큼 정부 입장의 변화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정부 압박을 동력

을 확보하고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통상 시교육청이 유치원 보육비 예산을 매월 10일 전후해 각 교육지원청으로 배정하면 교육지원청이 유치원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이뤄졌다. 앞서, 전남도교육청도 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2억8300여만원을 삭감, 의결한 전남도의회에 지난 30일 재의를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고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KTX 5분거리

광주시청 10분거리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무안공항 원할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 · 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